

## Contents

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과일·채소, 향후 콜드체인 식품시장 성장 주도할 것



#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싱가포르, 해양 혁신 촉진 위해 6천만 싱가포르 달러 투입
2. CMAT, 나이지리아 렉키항(Lekki Port) 운영사로 선정
3.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, 5년 연장 발표

### 명사 스피치

“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. 그 어떤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.”

최원혁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 
(2019. 11. 1. / 2019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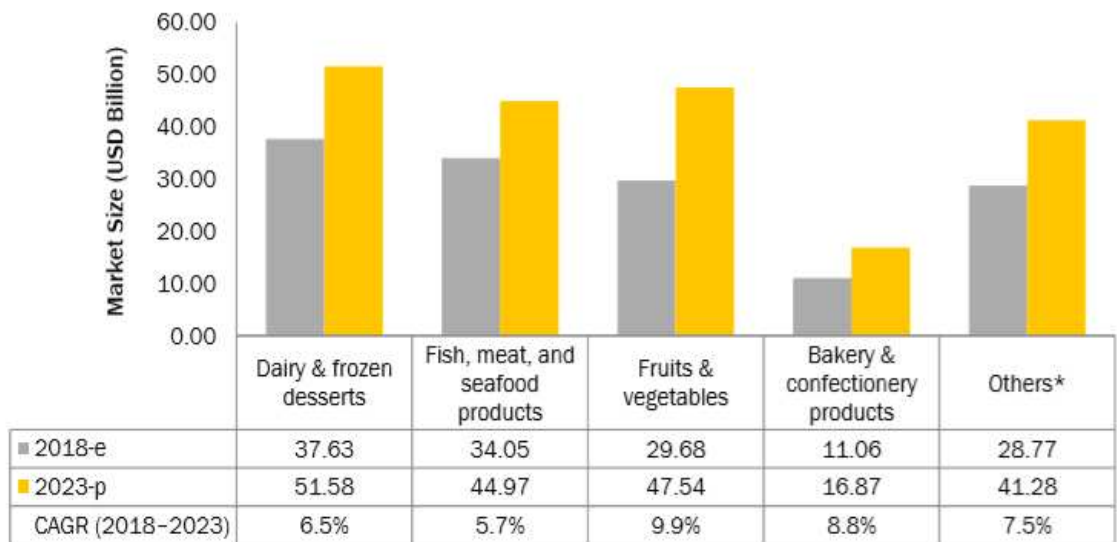

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 과일·채소, 향후 콜드체인 식품시장 성장 주도할 것

2018~2023년 콜드체인(신선식품) 품목별 연평균 성장률



주: MarketsandMarkets(2018), Cold Chain Market: Global Forecast to 2023

-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변화, 소득 증가, 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 등으로 과일, 채소, 육류, 생선, 해산물, 유제품 등 다양한 냉동 및 냉장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
- 특히 북미 및 유럽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건강식 등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선호함에 따라 과일 과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2017년 기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품목은 유제품 및 냉동 디저트(356억 달러), 생선·육류·해산물(323억 4천만 달러), 과일·채소(272억 4천만 달러) 순으로 나타남
  - 이 중 과일·채소가 2023년까지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(9.9%)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, 제과제빵(8.8%)이 그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됨

■ 참고자료 : MarketsandMarkets(2018), Cold Chain Market: Global Forecast to 2023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## 싱가포르, 해양 혁신 촉진 위해 6천만 싱가포르 달러 투입

- 싱가포르는 해양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, 운영 효율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6천만 싱가포르 달러(S\$)를 투자할 계획임
  -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SEEDS Capital과 MPA(Marin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)는 국내 초기단계 기저기술(deep-tech) 스타트업에 대한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음
  - 이번 투자는 해운, 항만물류, 항만운영, 해양서비스 등 해양산업 내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, 안전,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  - 싱가포르는 2018년 상하이항(4,201만TEU를 처리)에 이어 3,660만TEU를 처리한 세계 2위의 항만임
  - 싱가포르의 해양 관련 산업은 총생산의 약 7%를 차지하고 있으며 5,000개 이상의 기업이 약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
  - 해양산업의 발전은 '세계 최고의 허브항', '국제 해양 중심지'인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고 물류, 제조, 도매 무역과 같은 보완적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
  - 특히, '파트너십'과 '공동 혁신(joint innovation)'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
- '공동 투자'와 '파트너십'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을 투자자·기업과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해 해양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
  - 해양기술 시장에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저기술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구분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과 협력할 계획임
  - 한 MPA 관계자는 해상업계 운영방식을 재구성해 향후의 혼란과 환경규제 문제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, 이번 투자가 기술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해양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함

■ 참고자료 : [www.zdnet.com](http://www.zdnet.com), 2019.11.12.

신정훈 연구원

051-797-4695, [jh.gary.shin@kmi.re.kr](mailto:jh.gary.shin@kmi.re.kr)

## CMAT, 나이지리아 렉키항(Lekki Port) 운영사로 선정

- CMA CGM 자회사인 CMAT(CMA Terminal)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최근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의 렉키항(Lekki Port) 운영사로 최종 결정됨
  - 지난 9월 Lekki Port LFTZ Enterprise와 양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CMA CGM와 중국 CHE (China Harbour Engineering)가 합작 투자한 CMA Terminals Nigeria는 해당 항만의 운영자로 선정됨
  - CMA Terminals Nigeria가 운영 예정인 렉키항(Lekki Port) 개발 프로젝트는 10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의 Tolaram Group이 개발한 800ha의 라고스 자유무역지역(Lagos Free Trade Zone) 내에 위치하고 있음
  - 연간 120만 TEU의 하역능력으로 설계되었으며(향후 연간 270만 TEU로 확대 예정),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됨
  - 해당 항만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제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, 지난 주 항만개발을 위해 중국개발은행에서 6억 2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확정되기도 함
  -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CMAT가 높은 수준의 터미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렉키항 운영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렉키항(Lekki Port)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에 있는 가장 큰 항만으로, Lekki Port LFTZ Enterprise는 나이지리아 항만공사(Nigerian Port Authority·NPA)로부터 45년간 항만 건설, 개발, 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음
  - Lekki Port LFTZ Enterprise는 중국의 CHEC와 인도네시아의 Tolaram Group 및 나이지리아 항만 공사(NPA)와 컨소시엄으로 형성된 기업이며, 항만운영은 향후 2022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 - 또한 Lagos Free Trade Zone은 100% Tolaram Group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



자료: Googlemap



자료: marine-executive

■ 참고자료 : Hellenic Shipping News 및 Port Strategy 참조, 2019.11.12. 검색

김보경 연구원

051-797-4674, kimb@kmi.re.kr



##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, 5년 연장 발표

-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를 5년 연장하기로 발표함
  - 싱가포르 해양항만청(MPA·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)은 2011년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(MSGI)를 발표함
  - MSGI는 다음 5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: 친환경 선박, 친환경 항만, 친환경 기술, 친환경 에너지, 친환경 인지
  -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지난 8일 싱가포르선급포럼(Singapore Registry of Ships Forum 2019)에서 MSGI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



자료 : <https://www.porteconomics.eu/2019/07/12/lng-bunkering-solutions-in-ports-a-literature-review-and-research-agenda/> (2019.11.12)

- MSGI의 친환경 해양·항만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  -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탈탄소화(Decarbonisation)를 위한 탄소 공지나 가격책정을 사용자에게 독려할 것이라 언급함
  - 또한, LNG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하거나, 항만에 머무르는 동안 LNG 벙커를 사용하는 경우,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  - 오는 2020년 3분기부터 2대의 LNG 벙커선을 도입해 LNG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  - 장기적으로 싱가포르를 LNG 벙커링 허브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orldmaritimeweb.com/archives/286171/maritime-singapore-green-initiative-extended-until-2024/>, 2019.11.12

서정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676, jseo@kmi.re.kr